

K-water연구원 구암 아동 전통문화 체험 나눔

✎ 이한영 기자 | ☎ 승인 2026.09.22 11:18

추석 선물 후원금 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전달
전통 노리개 장식품 만들며 명절 의미 되새겨
임직원 자발적 물사랑 나눔펀드로 온기 확산



▲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봉사단원들이 대전 구암지역아동센터에 추석 명절 선물 후원금 200만원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 김병기 연구원장

알록달록한 노리개가 아이들의 손에서 추석 장식품으로 모습을 바꿨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이 21일 대전 구암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아동들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한가위의 정을 나눴다.

봉사단원들은 명절 선물 마련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건넸다. 이어 아이들과 함께 전통 노리개를 활용한 장식품을 만들며, 익숙하지 않은 명절 문화를 손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 K-water연구원 봉사단원들이 구암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전통 노리개 장식품을 만들고 있다

이번 만남은 물품 지원과 체험 활동을 한자리에 묶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이들은 장식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추석의 풍요와 가족·이웃 간 나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했다.

후원금은 K-water연구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물사랑 나눔펀드'에서 마련됐다. 연구원은 이 기금을 바탕으로 지역의 아동과 이웃을 잇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병기 연구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며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명절의 기억은 선물보다 함께 손을 움직인 시간에서 오래 남는다. 구암지역아동센터에서 이어진 전통문화 체험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가위 한 장면으로 남게 됐다. /대전=이한영기자



이한영 기자 hy7337@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추석 앞서 아동센터에 200만원 후원

박찬수 기자

2026.09.22 오전 10:20

대전 구암지역아동센터 찾아 명절 나눔활동



김병기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장(사진 앞줄 가운데 왼쪽)을 비롯한 K-water연구원 봉사단은 대전시 구암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고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K-water연구원은 대전 구암지역아동센터에 명절 선물 마련을 위한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원 봉사단원들은 아동들과 함께 전통 노리개를 활용한 장식품을 만들며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후원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물사랑 나눔펀드'가 활용됐다.

물사랑 나눔펀드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아 조성하는 사회공헌 재원으로, 재해 구호와 소외계층 지원, 환경보전 등 다양한 봉사 활동에 쓰이고 있다.

김병기 K-water연구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며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6298547>

K-water연구원, 추석 맞아 지역아동센터에 온정 나눔

✎ 김현수 기자 | ☎ 승인 2026.09.22 16:41

구암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 200만 원 전달
아동들과 전통 노리개 장식품 만들며 명절 의미 나뉨



김병기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장(앞줄 가운데 왼쪽)을 비롯한 K-water연구원 봉사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미래세대 주역인 아동들과 한가위의 풍성함을 나누기 위해 21일 대전시 구암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수자원공사)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추석을 앞두고 지역 아동들과 명절의 풍성함을 나누기 위한 따뜻한 나눔활동이 펼쳐졌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은 지난 21일 대전 구암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하고 아동들과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후원금은 명절 선물 마련을 위해 전달됐다. 봉사단원들은 아동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추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전통 노리개를 활용한 장식품 만들기도 함께했다.

연구원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물사랑 나눔펀드’를 재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병기 K-water연구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며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tims@hanmail.net